

# 재독 한인 과학기술자의 독일내 취업여건 설문결과

< 2018.5, 주분분관 >

## 1 설문 개요

### □ (설문목적) 국내 청년의 독일 내 취업가능성 조사

- 주재국내에서 독일 경제호황으로 전문가 및 숙련인력 대규모 부족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 필요 목소리 증가

\* 독일상공회의소(DIHK)는 24천개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, 160만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고, 이에 기업의 1/3이 외국인력 유치 필요 언론보도(3.14, Tagesspiegel)

### □ (설문개요)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이공계 대학(원)생 및 기업·연구소·대학 등의 취업자 대상 독일 취업 가능성 및 여건 조사

- (기간) 2018. 5. 2.(수) ~ 5. 23.(수), 3주간

- (대상) 재독한인과학기술자협회(이하 ‘재독과협’) 회원

\* 1973년 창립된 독일거주 한인 과학기술인 모임. 11개 지역회 및 8개 학문분야별 전문분과로 구성 (회장: 박원선)

- (설문내용) 학업중, 취업중 경우로 나눠 온라인 설문 실시

- 학업중(학·석·박사과정) : ①독일내 취업 의향, ②취업 가능성, ③구직시 중요사항, ④현지취업 장점, ⑤취업 희망 직장(기업, 연구소 등)

- 취업중(포닥, 연구원, 기업 재직등) : ①현지취업 시점, ②취업된 직장(기업, 연구소 등), ③취업 가능성, ④구직시 중요사항, ⑤현지취업 장점, ⑥한국인의 구직시 가장 취약부분, ⑦한국 과학기술인에 현지취업 권장여부(소극적 권장인 경우, 사유 포함), ⑧한국정부 지원 필요사항, ⑨국내 독일 구직 청년에 조언 또는 우리정부에 건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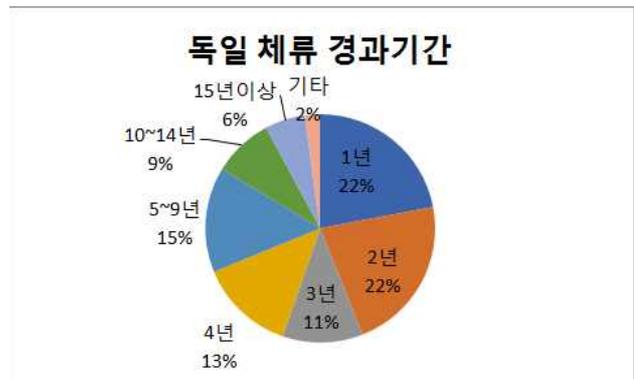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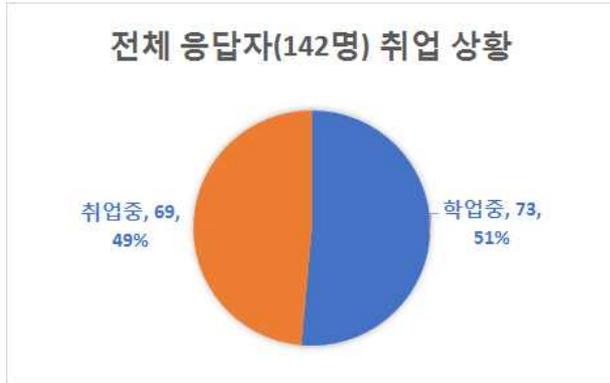
- 설문자 기본정보 : 현지 체류기간, 성별, 연령대, 전공분야

- (응답자수) 142명, 응답률 1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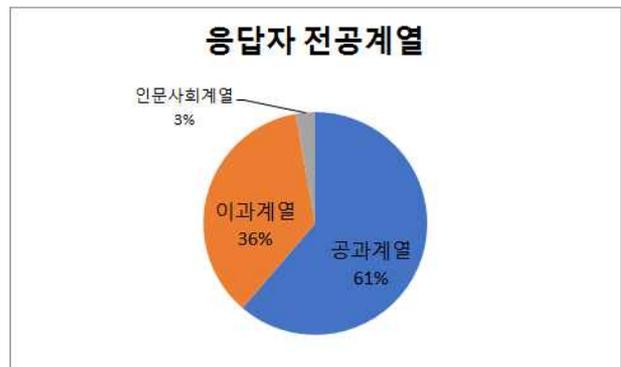
## 2 설문 결과

□ **(설문자 특성)** 응답자 142명 중 취업자가 49%(69명)이고, 학생이 51%(73명)로 각각 절반 차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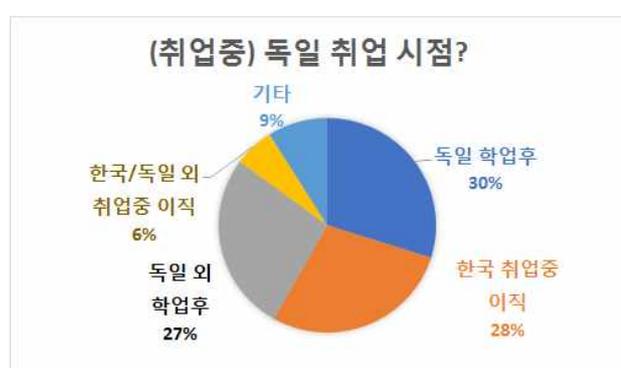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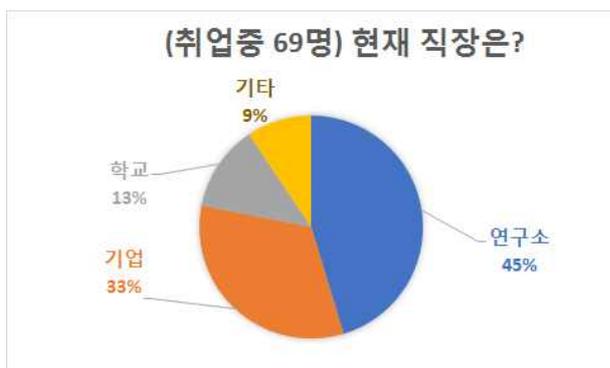
○ **(체류기간)** 5년 미만이 68%(98명), 10년 미만으로 확장하면 83% 점유



○ **(성별, 연령 및 전공)** 남성 72%, 여성 28%이고 연령은 20/30대가 대부분 (81%)이며, 전공은 공과계열 61%, 이과계열 36%로 대다수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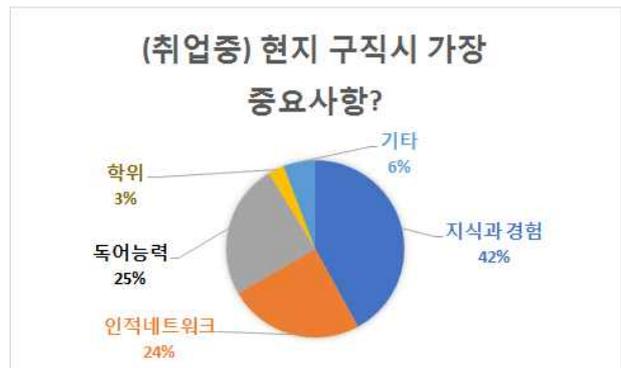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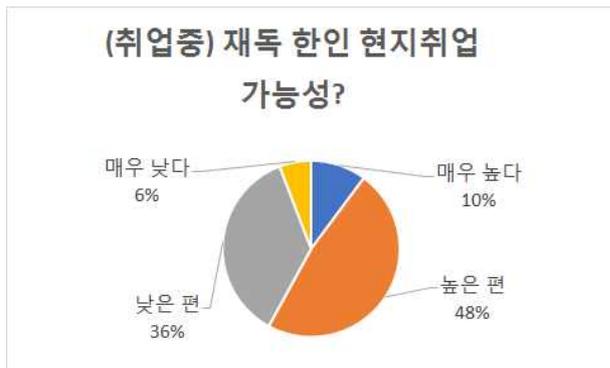


□ **(취업 중)** 응답자 69명 중 대부분이 연구소 (45%(29명)) 또는 기업 (33%(21명))에 근무 중이며, 대학 근무는 낮게 나타남(13%(8명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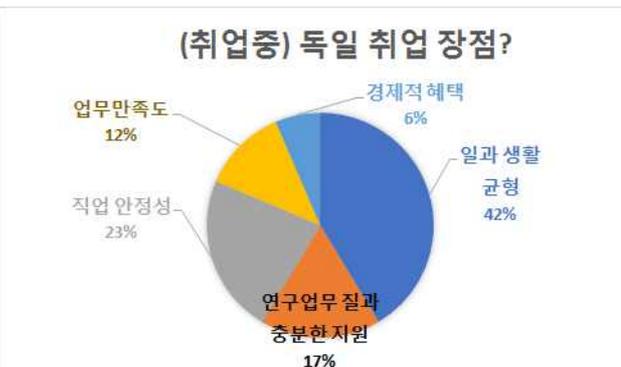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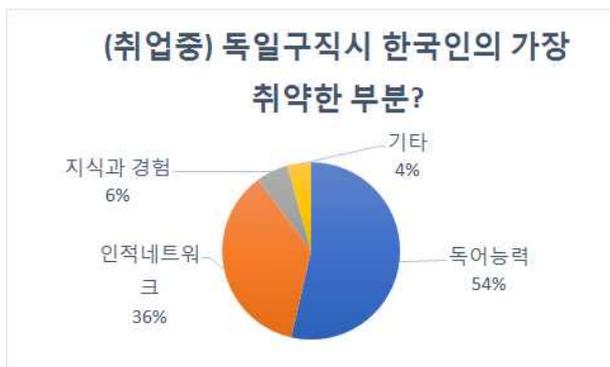


○ **(취업시점)** 독일에서 학업 후(30%)이거나 한국에서 취업중 이직(28%) 또는 독일 외에서 학업을 마친 후(27%)가 대부분을 차지  
 - 한국에서 학업 완료후 취업 응답은 1명으로 매우 미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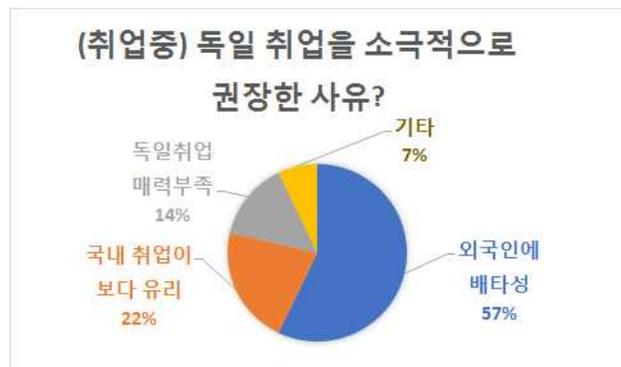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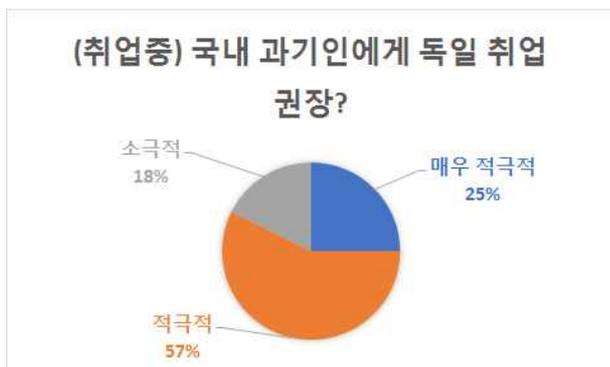
- **(재독 한인 과학기술인의 취업 가능성)** 매우 높다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우세(58%)하나,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응답(42%)도 상당 부분 존재
- **(구직시 중요사항)** 취업분야 지식과 경험(42%), 인적네트워크(25%) 및 독어 구사능력(25%)이 중요하나 학위(3%)는 낮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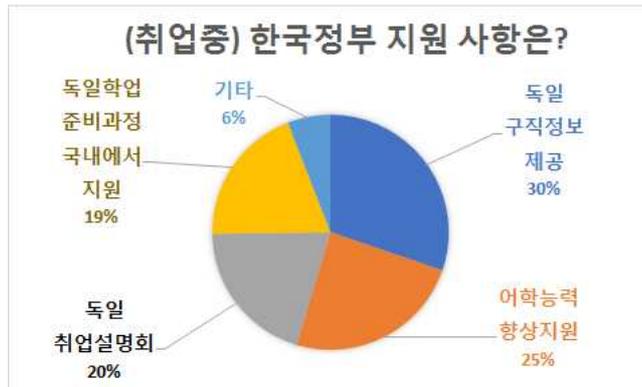
- **(한국인 구직시 가장 취약 부분)** 독어 구사능력(54%), 인적네트워크(36%)로 나타났으나, 취업분야 지식 및 경험(6%)은 매우 적게 응답
- **(독일취업의 장점, 복수응답)** 일·생활의 균형(42%), 직업 안정성(23%), 연구업무 질 및 충분한 지원(17%), 업무만족도(12%) 등이 모두 경제적 혜택(6%)을 상회



- **(한국에 과학기술인에게 독일취업 권장 정도)** 82%가 적극적으로 권장 답변. 소극적 권장 답변의 경우, 그 사유로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(57%), 한국취업이 보다 유리(21%) 등 언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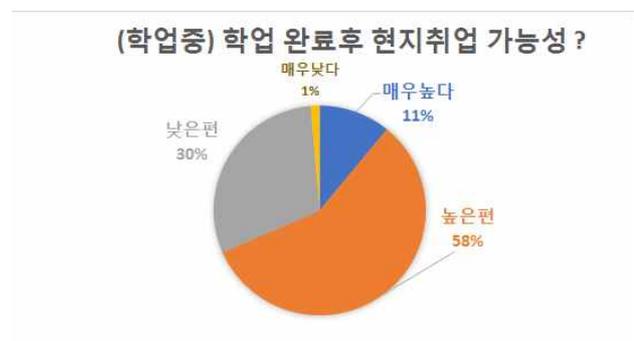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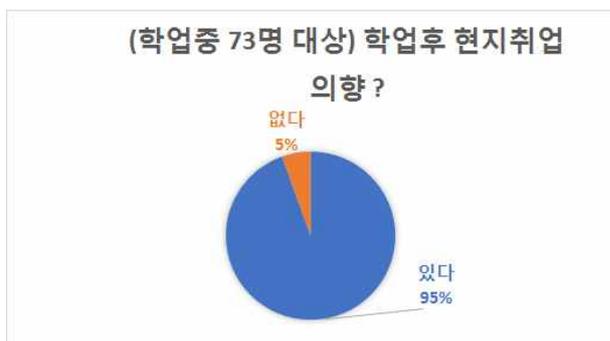
- (현지취업 확대를 위해 한국정부 지원사항, 복수응답) 현지 구직정보 제공(53%), 어학능력 향상 지원(43%), 현지취업 설명회 개최(35%) 등의 순으로 조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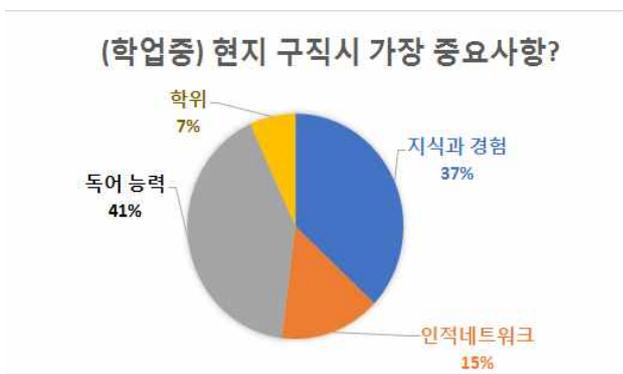
- (한국청년에 조인 또는 한국정부에의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)
  - 독일 취업동향은 고임금/고학력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인식 필요
  - 현지인 채용 우선정책과 독일사회의 독어 및 자국문화 이해 요구로 한국 청년의 독일취업은 까다로운 편임.
  - 실력을 떠나 한국에 있는 청년에게 인터뷰 기회 주지 않을 것임. 독일에서 학업 또는 포닥 후 커리어를 쌓는 것이 효과적임.
  - 한국도 낮은 출생률로 인해 향후 인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우리청년을 독일로 취업토록 유도하지 말고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를 당부
  - 일반 독일업체에서는 업무를 지원하는 테크니션들의 영어 구사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독어능력이 매우 중요, 또한 구직에 있어 사교성을 높게 평가
  - 독일에서 체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. 정부차원에서 독일 내 체류비자의 기간, 어학 준비 등의 기간에 독일 내 체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 필요한 부분이 많음 등의 의견 제시

□ (학업 중) 응답자 73명 중 대부분인 95%는 졸업후 독일에서 취업을 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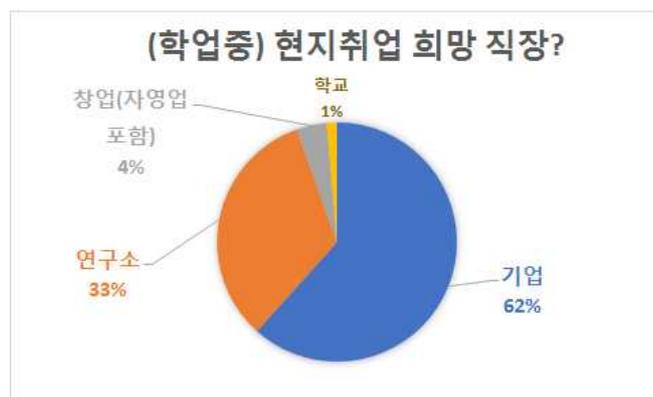
- (취업 가능성)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는 응답(69%)이 우세하나, 낮다는 응답도 31% 존재
  - 취업 중인 경우의 낮다라는 응답 42%보다는 낙관적으로 답변



- **(구직시 중요사항)** 독어(41%)가 가장 중요하고, 취업분야 지식과 경험(37%), 인적네트워크(15%), 학위(7%) 순으로 응답
  - 취업 중인 응답자는 취업분야 지식과 경험(42%), 인적네트워크(25%) 및 독일어(25%), 학위(3%) 순으로, 지식과 경험을 제일 높게 보고 인적네트워크도 독어와 같게 평가함.
- **(독일취업의 장점, 복수응답)** 일과 생활의 균형(52%), 연구업무 질 및 충분한 지원(19%), 직업 안정성(14%), 업무만족도(8%) 등이 모두 경제적 혜택(6%)을 상회. 취업중인 응답자와 유사하나 연구업무 질 및 충분한 지원이 보다 큰 장점이라 응답



- **(취업 희망 근무처)** 응답자 대부분이 학업 이후 기업(62%) 또는 연구소(33%)에 근무하기를 희망. 창업(4%)도 일부 있으나 대학에 근무 희망하는 응답은 73명중 1명으로 매우 미미



### 3 결과 분석

- 재독 한인 과학기술인은 한국 청년들의 독일 취업가능성을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하고, 독일취업을 권장하는 것으로 조사됨.
- 독일 취업가능성은 학생의 69%, 취업자의 58%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으로 응답하였고, 취업자의 82%가 국내 청년의 독일 취업을 권장

- 다만, 취업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학생의 31%, 취업자의 42%로 상당하고, 학생보다는 취업자가 더 비관적으로 답변
  - 독일취업을 소극적으로 권장한다는 응답자(18%)의 가장 많은 사유로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(57%)인바, 여전히 독일사회로의 편입이 어려움을 암시
- 독일에서 취업중인 이공계 한인 응답자 대부분은 연구소(45%)나 기업(33%)에 근무 중이며, 대학 근무는 낮은 편임(13%). 반면, 학생들의 경우 거의 모두 학업후 독일에서 기업(62%) 또는 연구소(33%) 취업을 희망하나 대학 근무는 기피 경향
- 취업자의 취업시점은 독일에서 학업후이거나 한국에서 취업중 이직 또는 독일 이외에서 학업후인 경우가 85%로 조사됨.
    - 한국에서 학업후 취업한 경우는 67명 중 1명으로, 한국 대학(원) 졸업 직후 독일 취업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.
  - 특히, 학생들의 경우 대학 근무 희망 응답은 73명중 1명으로 독일 대학의 근무여건이 어려움을 반증
- 구직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, 취업분야 지식과 경험, 인적네트워크 및 독어 능력을 들었는데, 학생인 경우 독어 능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
- 특징적인 사항은 학위는 학생중 7%, 취업자는 3%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남. 아울러, 몇몇 응답에서는 사교적 활동 능력이 현지취업에 유리하다고 지적
    - 이는 학위 보다는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높게 평가하고, 사교적 인적네트워크 및 노동 현장과의 소통(독어)을 중시하는 독일의 기업문화에 기인
  - 특히, 독어 구사능력은 한국인의 독일 구직시 가장 취약한 부분(54%)으로 인적네트워크(36%), 취업분야 지식과 경험(6%) 보다 많이 지적됨.
    - 영어가 보편화 된 일부 독일의 글로벌기업(예, 도이체 텔레콤)에서도 영어로 업무수행에는 지장은 없으나, 사교적 활동에는 지장이 커서 원만한 사회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독어 구사능력이 필요
- 재독 한인 과학기술인은 독일 취업의 장점으로 경제적 혜택 보다는 일과 생활의 균형, 직업 안정성 등에 많이 응답
- 취업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(42%), 직업 안정성(24%), 연구업무 질과 충분한 지원(17%) 등을 언급, 학생도 이와 유사하게 응답
    - 높은 소득세 및 사회보장제로 인한 순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, 안정된 사회보장시스템과 낮은 근로시간 등 가정친화적 근로환경 영향